

SPORTS '최하위권 위기' KIA, 안방서 분위기 반전 할까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이담 울러



13~15일 롯데·16~18일 두산과 홈 6연전
17승 21패 리그 8위...투·타 모두 살아나야

최하위권 추락 위기에 놓인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KIA는 지난주 주중 키움이어로즈에 워닝시리즈를 거둔 뒤 주말 SSG랜더스에게 루징시리즈를 당했다. 그 결과 17승 21패 승률 0.447을 기록, 순위는 8위로 하락했다. 리그 4위 NC다이노스와 1.5게임차이긴 하지만, 9위 두산과도 1.0게임차로 좁혀졌다. 이번 주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순위 향방이 완전히 뒤바뀔 예정이다. 현재 KIA는 부상 악재와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꼭두기 시즌 아웃 이후 최근 황동하가 교통사고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황동하는 지난 8일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분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만큼, 복귀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불펜진들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KIA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6.25이다. 키움(6.42) 다음으로 압도적인 수치다. 시즌 초반 제 몫을 해냈던 필승조 최지민은 어 느덧 평균자책점이 4.50으로 치솟았다. 극심한 제구 난조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초반 부진했던 전상현은 점점 안정감을 찾았으나 최근 3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면서 평균자책점 5.87을 기록했다. 조상우(평균자책점 3.71)와 마무리 정해영(평균자책점 2.60) 또한 마찬가지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발진에서는 이담 울러(8경기 4승 1패 48이닝 평균자책점 3.00)와 제임스 네일(9경기 2승 1패 53.2이닝 평균자책점 2.18)이 분전 중이다. 결국 타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어렵다. KIA는 올 시즌 팀 타율 8위(0.240)에 위치했다. 안타 305개(9위), 홈런 31개(5위), 출루율 0.334(6위), OPS(출루율+장타율)도 0.709로 6위로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형우의 경우 지난주 6경기에서 20타수 8안타 2홈런 8타점 타율 0.400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으나, 혼자서 팀 타선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KIA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투·타 모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를 롯데 라이언츠와 치르게 된다. 롯데는 현재 24승 2무 16패 승률 0.600으로 리그 3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4.46으로 중하위권(6위)이다. 하지만 타율 1위(0.286), 출루율 1위(0.359), OPS 3위(0.763) 등 타선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롯데는 데이비슨을 13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김도현을 선발로 투입한다. 롯데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다시 광주에서 두산을 상대한다. KIA가 롯데와 두산을 차례로 꺾고 순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형우

신한SO Bank KBO리그 중간 순위(1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40	27	13	0	0.675	0
2	LG	40	26	14	0	0.650	1
3	롯데	42	24	16	2	0.600	3
4	NC	36	17	18	1	0.486	7.5
5	삼성	41	19	21	1	0.475	8
6	KT	41	18	20	3	0.474	8
6	SSG	39	18	20	1	0.474	8
8	KIA	38	17	21	0	0.447	9
9	두산	40	16	22	2	0.421	10
10	키움	43	13	30	0	0.302	15

광주교통공사 김민주, 유도 그랜드슬램 '정상'

여자 -78kg급 결승서 이즈미 마오에 유효승

광주교통공사 여자유도팀 김민주(세계 22위)가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김민주는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2025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이즈미 마오(세계 59위)를 업어치기 유효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생애 첫 그랜드슬램 제패다. 김민주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서 자담바 우랑구(몽골)를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8강서 텔시두 엘리사벳(그리스)에 반칙승(지도 3개)으로, 준결승서 프라이타스 베아트리스(브라질)를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이즈미 마오를 상대로 경기 종료 2분 10여초를 남기고 오른손 업어치기를 시도해 유효를 따냈다. 이후 상대가 강공을 퍼부었으나 버티는 데 성공했고, 경기 종료 38초를 남기고서는 발목 받치기로 유효를 내렸지만 심판의 무효 정정 판

정으로 승리를 안았다. 김민주는 최근 출전하는 국제대회마다 입상 성적을 내며 오는 6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IJF 도쿄 그랜드슬램 준결승에서 2020 도쿄 올림픽과 2018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하마다 쇼리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땀다. 지난 4월 태국 방콕 MCC홀에서 열린 2025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같은 날 이현지(남녕고·세계랭킹 12위)도 여자 78kg 이상급 결승에서 프랑스의 줄리아 토로푸아(세계랭킹 18위)를 제압하고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날 남자 81kg급 이준환(포항시청)을 포함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은 종합 순위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이재성, 男계주 400m 이틀 연속 '한국신'

세계육상릴레이 패자부활전서 38초51 합작...세계선수권은 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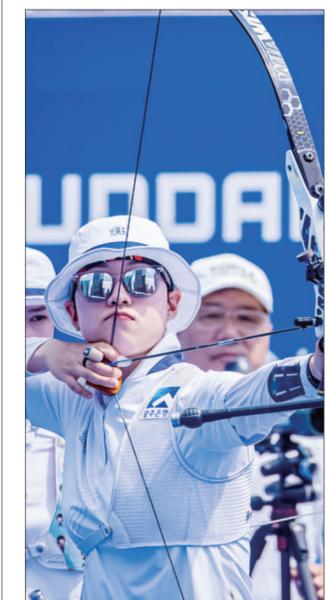
광주시청 육상팀 이재성이 국제대회에서 이틀 연속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 육상대표팀은 지난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 1조에서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연천군청), 이재성(광주시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 순으로 달려 38초51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날 예선 1조에서 서민준·나마디 조엘진·이재성·고승환(광주시청)이 작성한 38초56을 0.05초 단정 한국 신기록이다.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6월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에서 이시문, 김국영, 이용문, 고승환 순으로 달려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 38초68을 0.12초 단축한 바 있다.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이틀 연속 한국 신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올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선수권 출전권은 따내지 못했다. 이번 광저우 릴레이 대회에는 남자 400m 계주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14장 걸렸다. 10일 예선에서 각 조 1·2위에 오른 8개 팀(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폴란드)은 이번 대회 결선에 진출하며,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도 확정했다. 예선 탈락한 18개 팀은 11일 3조 조로 나눠 패자부활전을 치렀고, 각 조 1·2위 총 6개국(프랑스, 도미니카, 벨기에, 케냐, 중국, 호주)이 도쿄행 티켓을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 1조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멤버로 나선 이준혁이 이재성(오른쪽)과 기쁘게 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손에 넣었다. 한국은 패자부활전 3조에서 프랑스(38초31), 가나(38초32)에 이은 3위를 해 세계선수권 출전권 확보에 실패했다. 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400m 계주에는 16개국 이 출전한다. 남은 2장의 출전권은 광저우 대회 상위 14개 팀을 제외한 국가 중 2024년 2월 26~2025년 8월 24일 사이 기록이 좋은 2개 팀이 가져간다. 한편 이번 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7초61로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37초66)은 2위, 케냐(38초11)는 3위에 올라, 벨기에, 케냐, 중국, 호주)이 도쿄행 티켓을

광주은행 안산, 양궁월드컵 2차 대회 '금메달'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안산이 올해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 안산은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푸둥의 위안선스포츠헤터에서 2025 현대 월드컵 제2차 대회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팀을 이뤄 중국에 세트 스코어 6-2(56-53 57-54 54-57-52)로 승리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는 이가현(대전시체육회)이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을 6-2(28-29 29-28 29-28 29-27)로 따돌리며 생애 첫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김우진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는 중국에 6-2(37-35 36-38 39-38 37-36)로 승리하며 2관왕에 올랐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경주시청)이 3관왕을 차지했다. 김우진은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과 함께 나선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에 세트스코어 6-0(60-53 57-54 58-

56)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혼성전, 개인전 결승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다관왕 김우진과 임시현을 활약을 앞세운 한국 양궁은 리커브 전 종목을 석권하며 다음 달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3차 대회 전망을 밝게 했다. 안산은 "지난해 열린 양궁 월드컵시리즈에서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올해 첫 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면서 "중국과의 결승전은 강한 바람이 변수였다. 1번 주자로 나서 바람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전선수촌에서부터 호흡을 맞춘 임시현과 강채영과의 팀워크도 좋았다. 모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한 만큼 작은 변수도 극복해내는 순발력이 뛰어나 항상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을 준다"며 "최고의 선수들과 좋은 결과를 거둔 만큼 이번우기를 계속 이어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까지 '금빛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

도전의 무대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오늘 개막

16일까지 경남 일원서...광주 123명·전남 265명 출전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제19회 전국 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남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역대 최다인 4165명(선수 1926명, 임원 및 관계자 2239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총 123명(선수 76명, 감독·코치 23명, 임원 및 관계자 24명)이 출전해 육상 등 11개 종목에서 메달 46개(금메달 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전남 선수단은 10개 종목에 총 265명(선수 147명, 감독 37명, 코치 36명, 보호자 22명, 임원 23명)이 나선다. 전남 지역 참가 학교는 39개교(특수학교 9, 특수학급 30)로 순천선혜학교, 여수여명학교, 목포인성학교, 함평영화학교 등 특수학교

와 가사문화초, 고흥도화고 등 특수학급에서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는 여성정보과학고 농구팀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값진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첫 출전이 전남 장애학생체육의 저변 확대와 종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13일 오후 3시 30분 김해실내체육관에서 '꿈꾸는 우리, 우주로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전국 장애 학생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